

‘5·18 시민군 민원부장’ 정해직 선생 영면

“불의에 타협않는 도덕적 책임 지킨 올곧은 동료”
5·18 당시 끝까지 도청 사수…민주묘지서 영결식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초등학교 교사로 시민군 ‘민원부장’을 맡았던 정해직 선생이 영면에 들었다.

12일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故 정해직 선생 민주장 영결식’이 열렸다.

영결식은 애국악예, 인사말, 악예보고, 추모사, 유가족 인사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유족, 오월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민주화 운동들 함께했던 동지 등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추모사에 나선 채영선 5·18광주민중항쟁 최후의 시민군동지회 부회장은 “우리는 지금 올곧은 그 자체로 평생을 살아온 참교사 정해직 동지와 헤어지고 있다”며 “불의의 세상과는 타협이 없이 항

쟁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지켰은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남아 있는 과제 또한 살아있는 후배들의 몫이니 육신의 고통이 없는 저 세상에서 편한 마음으로 영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951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정해직 선생은 1979년 보성 노동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80년 5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정 선생은 시민군 지도부에서 민원부장 겸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항쟁 마지막 날인 5월 27일 전남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다가 계엄군에게 체포된 후 고문을 당했다. 이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으나 10개월 간 수감된 후 가석방됐다.

그는 교사로 복직했지만 민주화 운동 참여를 이유로 다시 해직당했고, 1983년



최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故 정해직 선생 민주장 영결식’이 열렸다.

특별체용으로 교단에 복귀,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과 교육민주화선언에 참여했다.

정해직 선생의 영면에 앞서 5·18민주화 운동 시민군들이 잇따라 영면에 들었다. 지난 7일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김항득 사진작가가 향년 62세로 별세했다. 김 작가는 1980년 5월 고등학생 신분

으로 시민군에 참여해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가 계엄군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이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5·18 현장과 사적지를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기동타격대원으로 활약했던 김재귀씨가 병마와 생계난 속에서 향년 61세로 쓸쓸히 눈을 감았다.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옛 전남도청으로 향해 자발적으로 5·18 기동타격대에 합류한 그는 내란부하 수형 혐의로 장기 4년·단기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형 집행정지로 출소했다. 이후 광주 학살의 책임자 처벌, 5·18 암매장지 발굴, 옛 전남도청 철거 반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섰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GS칼텍스 노사, 여수사랑상품권 10억 구매

지역경제 활성화·여수섬박람회 성공 기원 협약

전통시장·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캠페인 등 전개

GS칼텍스(대표 하세홍 사장)는 GS칼텍스-노동조합(위원장 장대익)과 함께 석유화학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지역 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여수사랑상품권 10억원을 구매했다.

GS칼텍스 노사는 최근 여수시장실에서 ‘여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기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김성민 GS칼텍스 CSEO·각자대표 겸 생산본부장, 장대익 GS칼텍스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GS칼텍스 노사가 여수사랑상품권 구매를 통하여 지역시민으로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내년으로 다가온 지역 내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함께 기원한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정기명 시장은 “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GS칼텍스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결단을 해줘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품권 구매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장대익 GS칼텍스 노조위원장도 “여수시와 GS칼텍스는 상생협력 관계에 있다”



GS칼텍스 노사는 최근 여수시장실에서 ‘여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기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며 “여수가 잘 되야 회사 임직원들도 여수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적극 사용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각자대표는 “지역경제가 어려

울수록 민간의 선제적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역친화기업인 GS칼텍스부터 솔선수범해 상품권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반짝반짝 호기심 교실’ 호응

구례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돌봄 프로그램 운영

구례군은 최근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에서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반짝반짝 호기심 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반짝반짝 호기심 교실’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부족한 돌봄 인프라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의 요구에 맞춘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구례군가족센터 주관으로 ‘보호자와 함께하는 영유아 오감발달 교실’과 ‘초등학생 미술교실’ 2개의 프로그램이 매주 수·목요일,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에서 운영된다.

영유아 오감발달 교실은 8개월부터 22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감놀이 등을 통해 인지 능력과 대·소근육 발달을 돕고, 미술교실은 초등학생의 창의력 향상과 또래



간 사회성 증진에 기여해 부모와 아이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례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에서의 초등학생 대상 토요돌봄, 어린이집 6개소의 유보공동교육 과정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서구새마을문고, ‘영광으로 떠난 길 위의 인문학’ 성료 광주 서구새마을문고(회장 김옥자) 회원들은 최근 영광 새마을문고를 방문해 지역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인문학의 의미를 나누고 지역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영광으로 떠난 길 위의 인문학’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새마을회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은 곡성 만들기 동행

곡성군, 가수 나영 홍보대사 위촉…지역축제 등 참여

곡성군은 최근 곡성군청 대동마루에서 가수 나영을 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곡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장미·기차마을로 대표되는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누구나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수 나영은 메이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으며, 밝고 친근한 이미지와 함께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특히 청각의 불편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도전해 온 삶의 모습은 곡성이 지향하는 활력 있고 희망적인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영은 “노래를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듯 곡성의 매력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홍보대사로서 곡성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앞으로 가수 나영과 함께 장미축제 등 지역축제와 각종 문화 행사 등에 참여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10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김희훈·조나래 부부와 김상운·전윤희 부부를 선정했다.

농협 전남본부, 10월 ‘이달의 새농민상’ 선정

영암 김희훈·조나래 부부

함평 김상운·전윤희 부부

농협 전남본부는 10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김희훈·조나래(영암군 삼호읍) 부부와 김상운·전윤희(함평군 신광면) 부부를 선정했다.

‘새농민상’은 농협중앙회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을 바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영농의 과학화,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선도 농업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김희훈·조나래 부부(영암새대농장)는 전업농으로 활동하던 부모의 영향을 받아 영농을 시작했다. 지역 특산물인 무화과를 중심으로 단순한 생과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온라인 판매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소규모로 분산돼 있던 무화와 재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간척지를 개간, 대규

모 과수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했다.

또 새로운 재배기법 연구와 시범사업 참여 등을 통해 과학영농 실천에 앞장섰으며, 지역사회 봉사에도 적극 참여해 신뢰받는 농업인으로 평가받았다.

김상운·전윤희 부부(학동농장)는 1983년부터 벼, 양파, 고추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영농활동을 이어오며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앞장서왔다. 40여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농가에 친환경영농 기술을 전파하고, 제주도와와 농산물 교류 사업을 통해 판로를 넓히며 농업인 간 상호협력과 교류 활성화에도 힘썼다.

또한 계획영농과 품질 높은 농산물 생산을 통해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그는 함평군 친환경영농협의회 신광지회장, 신광면 원산2리 이장, 함평농협 비상임이사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헌신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제주 향우, 고향 전남에 따뜻한 손길

재서귀포시 전남도민회, 전남도에 500만원 기탁

전남도는 (사)재서귀포시 전남도민회가 지난 10월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담아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장은술 회장을 비롯해 박상식 상임 부회장, 박종근·이관식·강승원 부회장, 김상도 감사, 박성준 총무 등 주요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됐다.

장은술 회장은 “비록 몸은 제주에 있으나 마음은 늘 고향인 전남에 있다”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고향과의 교류를 지속하며, 지역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출향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사례라며 감사를 전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출향민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가 고향사랑기부제

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해주다”며 “보내주신 정성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사)재서귀포시 전남도민회는 1971년 창립돼 현재 약 5만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지역 교류 행사와 고향 방문을 꾸준히 이어오며, 전남과 제주를 잇는 향우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실천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 사업에 쓰인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담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초과분은 16.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